



## 청소년기 자폐성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중심계획 수립 및 실행 사례연구\*

강 호 연\*\* · 서 효 정\*\*\*

### A Case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erson-centered Planning for Adolescent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Kang, HoYeon\*\* · Seo, HyoJeong\*\*\*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t a special school while the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ersonal-centered plans that utilize the Supports Intensity Scale for children.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meetings, interviews, and class logs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20 and a case study was conducted. **[Results]** Th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ir person-centered plan meetings and tried to reach their own goals with supports from special teachers and parents based on their strengths and aspirations. During this process, the priority for the special teachers to focus on in class was determined and both parents and students cooperated systematically with each other. The implications of implementing person-centered plans were as follows: (a) the person-centered planning placed the student at the center of the overall proces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b) stakeholders worked together to reflect the philosophy of person-centered planning in their own classes, and (c)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person-centered plans. **[Conclusion]** When person-centered plans are applied at school sites, They should be harmonized with each student's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n addition, flexible instructional designs and instruction reconstruction need to be considered.

**Key Words:** Person-centered planning, Individualized support plan, Special education teacher, Case study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2021년도 석사 논문을 요약·보완하였음.

\*\* 제 1저자, 동신중학교 교사(89hoyeon@gmail.com)  
Teacher, Dongsin Middle School

\*\*\* 교신저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국 지적·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에서는 최근 12차 지적장애 정의 및 분류에 대한 편람을 발간하였다(Schalock, Luckasson, & Tasse, 2021). 12차 편람에서는 효과적인 지원체계의 특징 4가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효과적인 지원체계는 개인의 지원요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개인 중심성(person-centered)에서부터 시작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지원요구는 표준화된 지원정도척도(Supports Intensity Scale)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지원요구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보다 개인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지원의 영역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효과적인 지원체계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지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선택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②통합된 환경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③모든 이에게 제공 가능한 일반적 지원 및 ④전문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지원을 포함한다. 셋째, 효과적인 지원체계는 개인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의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자원과 전략을 보다 통합적(coordinated)으로 제공한다. 개인지원계획은 장애인 개인을 의미 있게 포함하는 수평적 구조의 교육팀 혹은 지원팀에 의해 랩어라운드(wrap-around) 접근을 바탕으로 개발·실행·검토·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지원체계는 성과 지향적(outcome-oriented)으로, 성과는 인간 기능성 차원(지적기능, 적응행동, 건강, 참여, 맥락) 혹은 삶의 질 영역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구성된다. 요약하자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지원요구를 근간으로 교육지원팀이 협력적으로 개인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도는 정상화 원칙과 통합 및 자연적 지원의 개념을 근간으로 개인중심계획(Person-Centered Planning, PCP)과 함께 시작하였다(Rasheed, Force, & Miller, 2006; Richie, 2002). 개인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도 큰 맥락에서는 개인중심계획의 일환이며, 1980년대 PCP 개념이 태동한 이후 그 타당성과 성과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검증되어 왔다(김은하, 2015). 실제로, 김은하(2013)는 개인중심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과 가족을 중심으로 대상 학생의 미래 계획을 만들고, 강점과 지원요구를 판별하여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후속 조치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개인중심계획은 사람들이 미래에서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게끔 도와주고, 개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장애인들을 지원하도록 돕는다(Rasheed et al., 2006). 장애학생의 교육에 개인중심계획을 적용하게 되면 학생뿐만 아

나라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할 수 있다 (Meadan, Halle, & Ebata, 2010). 이는 이보현(2021)의 연구에서 학교 현장에 PCP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PCP를 적용하면서 개별화교육 지원팀의 역할이 학생을 ‘평가’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으로서의 역할로 나아가고, 비구어 발달장애학생들에게 개인중심계획을 적용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박은혜(2020) 연구에서도 개별화교육계획에 PCP를 활용하였는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에서 부모가 자녀의 미래계획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 영역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장단기목표와 세부 목표를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부모의 개별화교육계획 참여가 증진되고 긍정적인 태도 함양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비교적 최근에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개인중심계획 철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하여 교육성과를 살펴본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하자면, 첫째,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킨 연구들(김은하, 2013; 우세진, 2019; 이현주, 이윤우, 2017; 임대섭, 방명애, 2010)로, 이 중 김은하(2013)는 중학교 학생이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자신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중심계획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학생과 부모를 모두 참여시켜 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자기결정 향상 정도를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정지희, 박지연, 2019; 홍주희, 이숙향, 2019). 셋째, 전환기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중심계획을 실시하여 연구 대상 학생의 자아인식, 미래에 대한 기대 및 계획에 긍정적인 경험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이현주, 이윤우, 2017). 이렇듯 개인중심계획을 적용하였을 때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 교육 현장에서는 개인중심계획 철학을 교육계획 수립 단계에 반영하여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김은하, 2013, 2015; 박재국 외, 2012; 이현주 외, 2017). 더욱이, PCP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교사 개인이 학생들의 학습수준과 지원요구를 객관적인 근거로 측정하여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장애 학생에게 PCP를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특수교사들이 겪은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PCP 적용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상의 경험이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와 그 경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첫째, 청소년기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개인중심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기 자폐성장애 학생에게 개인중심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는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서 PCP를 적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을 대상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학기 초 연구자가 모든 학부모에게 이 연구의 목적, 내용, 기대효과까지 설명하여 연구 참여를 독려하였고,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도민준 학생(가명)과 강동력 학생(가명)을 선정하였다<표 1>. 도민준 학생은 반향어와 자기 자극이 심한 편이지만 글을 천천히 읽고 쓸 수 있다. 약을 복용하고 있어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리 이탈이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인다. 강동력 학생은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의사소통 능력 및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시대로 주어진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는 끈기를 지닌 학생이다. 하지만, 협동학습을 통한 사회성 증진이 필요하며 원래 해오던 방식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는 특성이 있다.

<Table 1> Participants' background information

	Do, Min-Joon	Kang, Dong-Ryeok
Gender	M	M
Age	16 years old	16 years old
Disability	Autism Spectrum Disorder	Autism Spectrum Disorder
SNI Score	113	85
Future Goal	Never thought about his future	Bus Driver

Note. Pseudonyms are provided. SNI = Support Needs Index. The higher SNI indicates the higher support needs.

### 2. 연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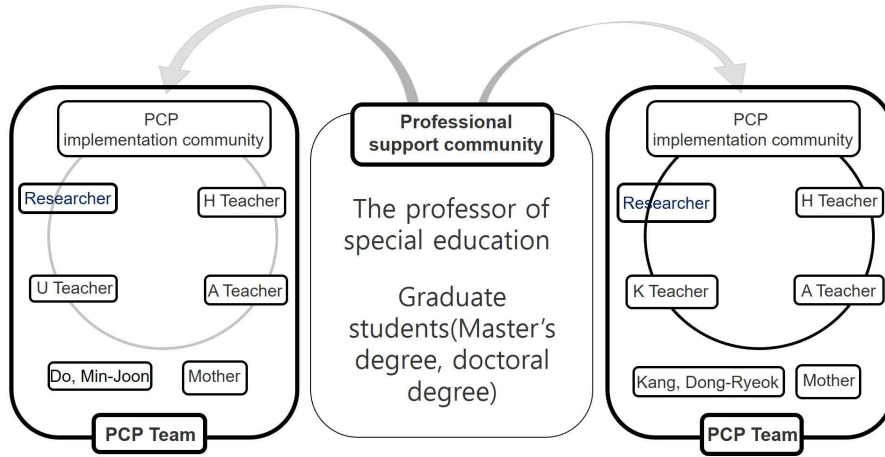
이 연구는 서효정, 임경원, 전병운 (2020)에서 소개된 PCP 실행 과정을 참고하여 이 연구의 실행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의 6단계로 연구절차를 재구성하였다: ① 성과체계

(outcome framework)와 성과범주(outcome category) 선택하기, ② 프로파일링을 바탕으로 지원요구를 우선순위화하기, ③ 지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정도척도의 결과 활용하기, ④ 지원요구에 맞는 지원 전략 개발하기, ⑤ 교과별 수업 및 지원전략 적용하기, ⑥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과정을 평가하기. 각 단계에서 PCP 팀은 협력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학생 모두 청소년기 학생이나 아직 미래계획이 뚜렷하게 수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평생교육과 고용에 중점을 둔 성인용 지원정도척도가 아닌, 아동용 지원정도척도(Supports Intensity Scale for Children: SIS-C)(서효정, 전병운, 임경원, 2021)를 활용하여 각 학생별 지원요구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표 2>와 같다.

**<Table 2> Research procedure**

Stage	Contents		Month				
			8	9	10	11	12
Preparation	Observing students and implementing SIS-C		○		○		
	Conducting person-centered planning team meetings			○			
Implementation	PCP Team	Selecting outcome framework and outcome category		○		○	
		Prioritizing personal goals		○		○	
		Using SIS-C results		○		○	
	PCP Implementation community	Developing support strategies			○	○	
		Providing instructions in classes and applying support strategies			○	○	○
Evaluation	Evaluating SIS-C implementation process					○	○
	Conducting person-centered planning team meetings						

PCP 팀은 <그림 1>과 같이 각 학생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4명의 교과 담당교사로 구성되었으며, PCP 팀 중에서 연구자와 교과 담당교사로 구성된 PCP실천공동체는 실제 수업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PCP실천공동체는 설정된 개인지원목표를 염두하고 수업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PCP에 대한 경험 및 의미를 찾아갔다. 연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원 공동체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문적 지원 공동체는 특수교육과 교수, 특수교육을 전공한 박사 학위 현직 교사, 석사 과정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팀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전문적 지원 공동체를 활용하여 PCP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Figure 1> Forming PCP communities

연구 대상 학생을 지도하는 교과는 주요 교과인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이 있으며, 직업 관련 교과는 직업과 자립, 직업준비, 진로와 직업, 예체능 교과는 체육, 미술, 음악이 있다. 주요 교과 중 국어와 사회는 연구자가 직접 가르쳤다. 나머지 교과는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과 담당교사가 가르치며, 학생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과학·체육 교사와 직업 관련 교과 교사 중 학생들의 교육적 우선순위 및 참여자의 동의를 고려하여 PCP팀을 구성하였다. 각 학생별 팀은 도민준 학생의 경우 연구자, 학부모, 학생 본인, 직업과 자립교사, 과학교사, 체육교사로 구성했으며, 강동력 학생의 경우 연구자, 학부모, 학생 본인, 직업준비 교사, 직업과 자립교사, 과학교사였다(표 3 참고).

<Table 3> Characteristics of teachers

	A teacher	U teacher	H teacher	K teacher
Gender	F	F	M	M
Age	31	33	40	35
Subject	Occupation and independence	Job preparation	Science	Physical education
Teaching Experience	6 years	4 years	12 years	7 years

A교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6년부터 꾸준히 특수학교 내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수업과 생활지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개별화교육계획 내 학생 참여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U교사는 첫 신규 때 동료 교사의 수업 나눔과 생활지도 관련한 연구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본 PCP실천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표현해주었다. H교사는 2020년 특수학교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고, 일찍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상태로 평소 수업이나 학생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이전부터 특수학급에 근무하면서 특수교육에서의 교육, 운영 및 제도에 대한 제한점을 많이 느꼈으며, 교사 간 소통 및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공동체 모임이나 협의회에 중요한 의견을 표현했다. K교사는 비록 다른 연구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은 없었지만, 평소에 특수교육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는 교사다. 2020년 이전에 계속 고등과정 담임으로 지도하다가 2020년에 고등과정 교과담당교사로 지도하게 되어 수업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과 새로운 시도를 적용하고 싶었던 차나에 이 연구 과정과 자신의 교육 철학과의 나아가는 방향이 일치하다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PCP실천공동체에 참여한 특수교사들 중에 A 교사만 PCP를 적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그 외의 교사들은 PCP를 실제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제한적이었다. 이는 국내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PCP 선행연구(박은혜, 2021; 우세진, 2019; 이보현, 2021; 이현주 외, 2017)에서 보고한 바와 맥락을 함께 하며, PCP를 실제적으로 적용해 본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연구 참여 교사 모두 PCP에 대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수와 협의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전문적 지원 공동체와의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PCP 철학에 기반을 둔 개인중심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하고자 노력하였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 1)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회의 및 협의회 전사록, 1:1면담, 수업일지,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PCP팀 회의를 학생별 2회로 총 4회, PCP실천공동체 협의회 3회, 전문적 지원 공동체 협의회 8회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녹음했으며, 수집된 녹음 파일은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들으며 전사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 수집한 협의회 자료는 학부모와 함께한 PCP팀 회의 촬영물, PCP실천공동체 녹음 자료 및 전문적 지원 공동체 자료가 있다. PCP팀 회의 촬영은

PCP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학생의 의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 과정 확인 및 장점과 요구 파악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PCP실천공동체 협의회는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가 한 자리에 모여 공유한 의견을 녹음하였다. 전문적 지원 공동체 자료는 연구자가 PCP를 실행하면서 직면한 어려운 점과 곤란했던 점에 대한 자문, 그리고 연구 절차와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둘째, 면담 자료는 PCP실천공동체 사례와 의미를 알아보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는 바, PCP실천공동체 개인면담, 학부모와의 면담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PCP실천공동체 개인 면담은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PCP 핵심 질문을 면담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난 뒤,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학부모와의 전화 면담은 일주일간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함께 각 교사가 PCP를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요구 사항, 각 교사가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수업 진행 방식을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서 자료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실행하거나 느낀 바를 적은 기록물이다. 각 교사별 수업일지는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서술하며, 각 지원 전략의 활용도와 느낀 점을 남겼다. 연구자 성찰일지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행 상 어려운 점,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실제로 실행했을 때 한계점과 스스로의 반성을 기록으로 남겼다.

## 2) 자료 분석

연구문제 1의 PCP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은 Stake(1995)의 전략 중 직접 해석(direct interpretation) 방법을 선택하여 사례 탐구 결과를 도출하여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구 결과 과정을 확장하였다. PCP실천공동체의 전체적인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참여자들이 알게 된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발견된 의미 단위를 비슷한 유형으로 묶거나 분류하여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주제들은 다시 원 자료로 돌아가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의 과정을 거쳤다(박선정, 2021).

연구문제 2의 PCP 실행 과정상의 의미는 Huberman과 Miles(1994)가 제시한 분석 자료 요약, 코딩, 주제 찾기, 덩어리로 묶기 작업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를 살펴보면, 자료 분석의 첫 번째 단계인 분석 자료 요약에서는 연구자가 녹음 전사한 텍스트 및 참여자들의 기록인 수업일지, 성찰일지 등의 모든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필요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였다. 두 번째 코딩 단계에서는 이 연구와 관련된 PCP 실천 경험과 관련해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찾아서 분류하고, 코드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범주화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주제 찾기에서는 코딩 단계에서 추출된 범주를 바탕으로 각 범주 간 관련성을 재구성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연구결과와 결론을 도출할 기초 정보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덩어리로 묶기 작

업에서는 자료가 제시하는 의미를 핵심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용어로 의미 구성을 하였다.

#### 4.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PCP실천공동체 구성원 협의, 전문적 지원 공동체 교사 협의, 삼각 검증법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에 의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PCP실천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연구자의 기록 및 해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진실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전문적 지원 공동체 교사 간 소통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에 관여하지는 않으나 연구자와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특수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동료 교사와 논의하거나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박사과정 이상의 현직 교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연구의 질적 분석과 해석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조언을 구하였다(김영천, 1997). 연구가 끝난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한 달에 2회 이상 대학원 모임을 가져 동료들과 지속적인 미팅을 거쳤고, 질적 연구 박사학위를 받은 현직교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연구자의 편견과 오류를 제거하는 절차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삼각검증(triangulation)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원 자료를 이용하여 결론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서 연구 자료의 진실성 확보에 필수적인 방법이다(Glesne, 1999). 이 연구에서는 수업 기록, 면담 기록, 전사 기록, 일지 등의 자료를 범주화하고 비교하여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PCP 수립 및 적용 과정

##### 1) PCP실천공동체 출발하기

연구 참여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SIS-C 자료를 활용하였다. SIS-C 측정을 위해서는 학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므로 측정 전에 각 교과 담당교사가 학생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여 학생의 의사소통, 사회성, 학습 수준, 행동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또한, 대상 학생들의 흥미나 미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생활과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PATH 모델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Figure 2> Applying a PATH model

첫 PCP팀 회의에서 연구자가 먼저 주도적으로 PCP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우선 SIS-C와 PCP의 대략적인 배경과 개념, 특징 등을 설명한 뒤 학생 개인별 지원요구를 측정하여 교육적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아래의 <그림 3-A>와 <그림 3-B>와 같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중요한 것과 개인을 위해 중요한 것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개인지원목표를 선정하였다.



<Figure 3-A> SIS-C results  
(Do, Min-Joon)



<Figure 3-B> SIS-C results  
(Kang, Dong-Ryeok)

PCP 팀은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기 동안 다루고 싶은 영역을 선정하고, 미래 계획을 위해 한 가지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학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 1가지를 학생의 미래 계획과 단기 목표와 연계하여 목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도민준 학생의 경우 상황에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으며, 강동력 학생의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옹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로 설정하였다. 이후 4주에 걸쳐 PCP실천공동체에 의해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졌다. 협력적인 접근 방식으로 수립한 지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방향과 속도를 맞춰 나갔

며, 교사가 결정한 전략의 적절성 여부 혹은 추가/수정 전략 유무에 대해 고민하였다. 다음 수업 시간의 제재와 내용을 먼저 파악한 뒤, 학생별 지원목표와 어울리는 전략을 적용하였다.

학생별 지원목표를 선정한 뒤 각 교과별로 수업 후 협의를 하였으나, PCP에 대한 의견 나눔보다 개인 수업에 대한 생각 나눔이 처음에는 주를 이루었다. 특히 연구 초반에는 개인지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 각자가 적용하는 전략들은 수업 활동이나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수정하기 보다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있었다.

첫 PCP실천공동체 협의회를 해보긴 했는데, 협의 후 느낀 점은 생각보다 풍부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너무 ‘수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소통하는 느낌이다. 분명 연구는 SIS-C와 PCP에 중점을 뒀서 이야기가 오고갈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수업계획과 전략만을 공유하는 자리로 끝났다.

(2020.10.3. 연구자 성찰일지 中)

한편,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학생이 직접 PCP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본인의 현재 수준과 능력에 대한 협의를 하며, 본인의 한 학기, 1년의 계획과 평가 및 나아가 미래계획을 소통하는 자리에 학생 본인이 참여하여 자신의 장점에서부터 꿈까지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하고 나누었다. 이러한 기회에 익숙하지 않은 도민준 학생의 경우 특히나 회의에 집중하기 힘들어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는 등 문제행동을 보였다. 학생별로 차이가 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수준의 학생인 경우에는 참여도와 인내심 부족, 그리고 학생 참여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까지 나왔다.

도민준 : 아악- (소리 지르며 뛰어다닌다) 파란색 주세요. 파란색 주세요.

연구자 : 아,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나 봐요.

...(회의 중단, 다 함께 찾고 다시 본 자리로 복귀)...

H교사 :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게 힘든가 봐요.

A교사 : 그러게요. 그 누가 4시 넘어서까지 계속 앉아있겠어요.

(1회차 PCP협의회 전사본)

현재의 교육 시스템 내에서 PCP 철학을 온전히 녹여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PCP실천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 혼란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최대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어떤 지원을 제공하면 학생 지원목표의 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렇듯 PCP실천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한걸음씩 속도를 맞추어 발걸음을 떼어 가며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 2) PCP실천공동체만의 모습 갖춰가기

PCP팀 회의는 9월 4-5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보호자의 일정에 맞춰 <그림 4>와 같이 실시하였다. 두 학생에 대한 PCP팀 회의는 학생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PCP팀 협의회 이후 PCP실천공동체 협의회에서 교수 전략을 선정한 후, 선정된 전략을 사용해 보기로 하였다. 협의회가 진행된 뒤, 본격적으로 전략을 적용하기에 앞서 각 교사의 수업과 전략 선정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H 교 사 : 사실 개인중심계획이라고 하나.. 꿈부터 얘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꿈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현실을 반영한 미래계획을 짜야 해요. 동력이나 민준이 둘 다 직업적으로나 꿈으로나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못하면 사회생활하면서, 공동생활하면서 직격탄으로 맞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개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7회 PCP실천공동체 협의회록 전사본)



<Figure 4> PCP team meeting

PCP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 각 교과 담당교사들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결정된 지원목표를 수업 시간에 계속 상기하였고, 수업시간에 학생을 중심으로 이끌기 위해 조금씩 유연하게 수업방법을 변경하였다. 또한 PCP를 실행하기 이전에는 우선순위 없이 모든 것을 지도하려 노력하였지만, PCP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보다 중요한 교육 영역을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PCP팀 회의에서 학생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였다. 미리 PCP 핵심 질문에 따라 예상되는 반응을 담은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학생의 책상 위에 나열하여 학생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이 보다 의미 있게 PCP 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3) PCP실천공동체 성장하기

PCP를 적용하기 이전에는 학생을 관찰하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거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든 자료를 구해 와서 학생들을 파악하기 바빴던 반면에, PCP를 적용한 선생님들은 SIS-C에 근거하여 교육지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정해지고, 수업부터 가정 연계까지 학생에게, 그리고 학생을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A 교 사 : 솔직히 (문제행동부터 편식, 인사, 태도 등) 모든 것을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PCP는 '이것부터 하자' 라는 우선순위, 이것부터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제가 저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도 저도 좀 이제 내려놓으면서 이것에 집중하다보니.. 관점이나 생각의 차이가 된 것 같아요.

(6회차 개인면담 전사자료)

PCP를 통해 수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보였고, 학생을 대하는 태도부터 수업 참여 전략까지 학생별로 지도하는 방식이 다르게 변화되었다.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많았던 민준이를 PCP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방치한다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다른 우선순위(인사, 수업태도, 문제행동 중재)부터 가르치기 바빴지만, PCP를 적용했을 때는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 본다거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여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가르친다는 방향이 정확히 설정되어 자신감 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A 교 사 : 제가 민준이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 바뀌었어요. 참여시키기 위한 시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민준이가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봤을 때 안돼, 그럼 잠깐 빠졌다가 좀 전에 시도했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본다거나, 뭐 아니면 참여시키는 어떤 참여의 양도 조금씩 (바꾸거나요.) 다르게 바뀐 것 같아요.

(6회차 개인면담 전사자료)

PCP를 적용하는 과정 또한 PCP실천공동체 안에서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운영되었으며, 이는 SIS-C측정에서부터 결과 보고까지 이어졌다.

K 교 사 : 확실히 다 같이 하니깐 한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면도 있었지만, 역시 제가 느끼지 못한 면도 들을 수 있었어요. 연구를 시작하고 난 뒤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측정했잖아요. 이때는 더욱더 애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연구도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에 더욱더 동조하게 되었어요.

(5회차 개인면담 전사자료)

A 교 사 : PCP할 때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학부모님도, 각자의 선생님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고, 특성이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7회차 개인면담 전사자료)

매주 수업을 하고 난 뒤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협의회 자리에서도 PCP실천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차이가 일부 있었지만, 서로 의견을 맞추어가는 과정 속에서 도움이 되는 면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PCP실천공동체는 자신의 수업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던 학생의 반응을 들어볼 수 있었고, 다른 교사들이 활용하는 수업 방법이나 전략적인 측면들을 들어볼 수 있어 본인의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혔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 2. PCP 적용 및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

이 장에서는 PCP실천공동체가 PCP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PCP 철학적 지식과 교사 전문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PCP실천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대화 내용과 수업일지, 성찰일지, 면담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미를 구성하였다.

### 1) PCP 시작과 끝은 당사자

학생의 흥미, 재능, 장점 파악으로 PCP는 시작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우선적으로 두 학생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였으며, 이를 수업에 활용하며 학생들을 적절히 참여시키거나 강화를 제공하여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생 흥미 파악은 수업에 활용하기도 좋고 이후 전략과 관련하여 행동수정이나 반응대가를 활용하여 강화물로 사용하기도 용이하다. 이와 더불어 장점을 파악하여 잘하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약한 부분은 보완하여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도록 하였다.

U 교 사 : 동력이는 손으로 하는 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했던 대부분은 정말 잘했어요.

H 교 사 :현실을 반영한 미래계획을 최선책으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강점을 가지고 직업을 찾거나 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력이의 강점은 암기력, 대근육과 소근육이 괜찮다는 것이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뭐라도 분명히 있겠지요.

(4회차 PCP실천공동체 개인 면담 전사본)

A 교 사 : 목직하고, 손에 딱 들어오거나 고리가 있거나, 질감은 보통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손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무언가를 좋아해요.

...(중략)...

그렇게 민준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수업에 활용하다보면 어떤 활동은 참여를 높게 하는 거죠.

(4회차 PCP실천공동체 개인 면담 전사본)

이는 김은하(2013)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김은하(2013)는 개인중심계획을 활용한 진로교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게 보다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탐색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진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고, 자신의 개인중심계획 회의에 다른 팀원들과 협의하며 자신이 바라는 진로 목표에 대해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PCP의 중심은 학생 당사자로, 학생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고 팀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수업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 계획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2) PCP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공동체

PCP실천공동체는 PCP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였다. 특히 학급에서 PCP를 적용하면서 개인지원목표를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한 교과 학습목표에 녹여내어 학생을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H 교 사 : 민준이가 지금 우선순위로 결정한 목표가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나 말을 요구하는거 같아요. ...(중략)... 민준이가 (과학 시간에) 모자와 블록을 좋아한다면, 모자와 블록을 뺏고 난 뒤에 저한테 두 개를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러면 과학 내용과 수업목표랑은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4회차 PCP실천공동체 개인 면담 전사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PCP실천공동체는 개별화교육계획과 개인중심계획 철학을 반영하여 수립한 개인지원계획의 목표를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유연화하고 교육활동을 다양화하며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전략을 향상시키며 실천적 지식을 쌓았다.

이번 진로와 직업 시간에는 대근육 평가 시간이다. 어떻게 하면 민준이에게는 주어진 과제를 훌륭하게 성취해내게 할 수 있을것인가, 또 동력이에게는 다른 친구와 협력과 의사소통하면서 과제를 성취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대

근육 평가의 내용은 줄넘기, 오래달리기, 체자리 멀리뛰기가 있었다. 연구자는 체자리 멀리뛰기를 선택하여 학생별로 측정 및 개인지원목표에 따른 전략(촉진 및 협동학습)을 적용하였다.

(4회차 수업일지 및 연구자 성찰일지)



<Figure 5> Individualized activities

교사는 수업 방법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도 재구성해야했다. PCP 철학을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 교사는 수업 방법을 유연하게 변경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았다. 일례로, 진로와 직업 교과 시간에 양성평등 교육을 해야만 했었다.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하면서 어려운 제재를 학생의 강점과 흥미를 고려하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번 시간은 양성평등 교육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학생 모두에게 남자와 여자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평소 같으면 남녀차별적인 발언이나 그림을 양성평등 입장에서 새롭게 작성하거나 그려보는 활동을 계획했을 것이다. 하지만 동력이의 ‘다른 친구와의 협동’ 이나 민준이의 ‘상황에 맞는 대화’ 라는 지원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PCP와 연결을 지어 계속 고민하였다.

...(중략)...

결국 양성평등 수업은 태블릿pc로 친구와 함께 짝을 지어 학교 내 남녀차별적인 문구나 상징, 그림을 찾아 사진으로 찍어오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3회차 수업일지 및 연구자 성찰일지)

위와 같이 수업시간에 PCP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전략 고민을 꾸준히 하였다.

### 3) PCP 아직은 멀고도 험한 길

학교에서 현장 교사에게 유익하고 명확한 PCP 방향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점 또한 도출되었다. 직접 PCP를 경험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확신이 없거나 막연하다’, ‘매뉴얼이나 절차가 정확하지 않다’, ‘참고할 자료가 없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사례연구를 진행하면서 PCP를 경험하고 여러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고민이 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특히 개인중심계획 관련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많이 하였다. 다양한 전략 적용을 위해서 전략에 대한 공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재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특히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수들은 범으로 정해져 있는 연수를 이수하기에도 바쁘고, 정작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수가 풍부하지도 않고 접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 교 사 : 개인중심계획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개인중심계획이라는 단어 말고 좀 연수를 한다면 개념 말고, 그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게 연구 되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하신다는 분들은 안 본 것 같아요.

(7회차 PCP실천공동체 개인 면담 전사본)

U 교 사 : 특히나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수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지금까지 연수는 긍정적행동지원이나 보완대체의사소통.. 이런 연수밖에 못 들어봤어요. 다른 전략들도 많은데.. 그러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반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다 똑같이 쓰죠. 그렇다고 해도 주변 다른 사람, 동료교사들에게도 물어보진 않았구요.

(5회차 PCP실천공동체 개인 면담 전사본)

#### IV.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폐성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중심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그 사례 속에 나타나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인중심계획의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교사의 경험과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사례 연구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개인중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실천적 지식을 쌓았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교육 현장 속에서 발달장애인의 지원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계획을 반영하는 개인중심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중심계획 철학을 교육현장에서 구현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먼저, 개인중심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조차 그 개념과 배경, 철학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김은하, 박승희, 2012; 이현주 외, 2017). 이 연구에서도 연구 초기에는

교과담당 교사들이 PCP보다는 수업의 진도나 문제행동 중재와 같은 자신의 수업 내용에만 집중하였고, PCP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차차 PCP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며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 나갔다. 김은하(2013)에서도 참여 교사들의 인식과 행동이 개인중심계획 회의 참여 경험을 통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장애학생에게 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학생이 갖고 있는 장애로 인해 그 특성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도 연구의 후반으로 갈수록 학생들에 대해 깊게 이해하게 되고, 수업이나 생활 지도에 있어서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 중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학생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추상적일 수 있는 개인중심계획 철학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면서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한 점이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중심계획을 학교 환경에서 실행할 때 대상 학생의 삶을 비롯하여 가정 생활, 학급 생활, 또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학생 지도 방법의 유연화를 요구한다(박은해, 2020). 학교 현장에 적용할 때 수업 재구성과 운영 방법의 유연화는 학생 당사자의 참여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학생 당사자에 맞게 교육과정과 목표 방향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교과 중심의 학업적 개별화교육계획(강은영, 박윤정, 서효정, 박경옥, 2018; 서효정, 박윤정, 강은영, 박경옥, 2019) 수립 및 실행이 보편적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PCP 철학을 바탕으로 수립한 교육지원계획이 개별화교육계획의 방향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PCP를 실시하면서 각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 내용을 학생들의 개인지원목표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수업과 같은 수업을 하거나 다른 반하고 비슷한 수업을 한다면, 개인지원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교사들은 학생별 개인지원계획에 맞춰 수업과 그 내용을 재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끼리 서로 어떤 수업이 더 방향성이 맞는지 혹은 개인별 지원목표와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수업 재구성은 무엇일지 서로 협의하며 논의해 보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이 조금씩 이루어졌다. 개인중심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은 학생별로 다양하고 교실 현장의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지도하거나 지원하기에는 교사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PCP실천공동체는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람직한 성과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협력적인 지원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학생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면서 PCP의 가치와 성과가 명료해졌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PCP팀 회의에서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는 그림이나 사진과

문자 등을 활용하거나(Stringham, 2013), 질문을 재구성하여 학생에게 지원을 제공하였다. PCP의 가치는 비단 학생 개인에게만 집중된 것은 아니었다. PCP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 각 교사별로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학생의 미래계획을 위해 도전행동과 생활지도, 수업목표까지 장기적·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도 PCP팀 협의회와 PCP실천공동체 협의회를 통해 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전략을 고민하며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 전문성과 학부모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개인중심계획 접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PCP팀과 그 구성원은 학생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인들 모두 충분한 사전교육과 부모교육, 상담, 연수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개인중심계획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당사자의 지원요구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개인중심계획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발표된 AAIDD 12차 지적장애 정의 및 분류에 대한 편람(Schalock et al., 2021)에서도 개인중심적인 측면에서 개별 지원요구를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체계의 특징임을 강조하였다. 개인이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패턴과 종류를 분석하는 것을 개인중심계획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인데,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표준화된 아동용 지원정도척도를 활용하여 각 연구대상자들의 지원 목표를 구체화하고 팀 접근으로 개인중심계획을 구현하였다.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아동용 지원정도척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후속연구 및 교육실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Glesne, C. (1999). *Becoming a qualitative researcher: An introduction*(2nd). reading, MA: Addison, Wasley Longman, Inc.
- Hong, J. H., Lee, S. H. (2019). The effects of transition support program for students and families on self-determin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family empowerment in high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Disability & Employment, 29*(2), 135-163.
- [홍주희, 이숙향 (2019). 학생과 가족을 위한 전환지원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의 자기결정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9(2), 135-163.]

- Huberman, A. M. & Miles, M. B.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 book of new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Im, D. S., & Bang, M. Y. (2010). The impacts of a transition planning program based on self-determination skills on the transition planning awareness, self-determination, and adaptive behavior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vocational education class of a special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10*(2), 85-111.  
[임대섭, 방명애 (2010). 자기결정기술 중심의 전환계획프로그램이 전공과 지적장애인의 전환계획인식, 자기결정기술 및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폐성장애연구**, 10(2), 85-111.]
- Jeong, J. H., Park, J. Y. (2019). The effects of a family-centered future planning program based on small group activities on self-efficacy and independence competency of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go-resiliency and family empowerment of their famil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4*(2), 1-27.  
[정지희, 박지연 (2019). 소집단 활동을 통한 가족중심 미래계획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립역량,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ang, E. Y., Park, Y. J., Seo, H. J., & Park, K. O. (2019). A research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IEP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EP type proposal and exploration of necessity of using qualitative indicator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3*(1), 137-163.  
[강은영, 박윤정, 서효정, 박경옥(2018).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및 실행의 질적 향상 방안: IEP 유형 제약 및 질적 지표 활용 필요성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53(1), 137-163.]
- Kim, E. H. (2013).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parents and teachers interviews on their experiences of person-centered planning meeting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2*(2), 5-34.  
[김은하 (2013). 지적장애 중학생 부모와 교사의 개인중심계획 회의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특수교육**, 12(2), 5-34.]
- Kim, E. H. (2015). A study on a direction of the advance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EP for th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erson-centered approach oriented.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7*(2), 1-24.  
[김은하 (2015).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실행의 진전방향성에 대한 고찰: 개인중심접근 철학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7(2), 1-24.]
- Kim, E. H., & Park, S. H. (2012). An application of person-centered planning to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plan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8*(3), 259-292.  
[김은하, 박승희 (2012). 개인중심계획: 발달장애인의 개별화계획 개발을 위한 적용.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259-292.]
- Kim, Y. C. (1997). The intellectual tradition of qualitative research and the example: Cultural and technological journals to postmodernism.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1), 225-251.  
[김영천 (1997). 질적 연구의 지적 전통과 그 예: 문화기술지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교**

육학연구, 35(1), 225-251.]

Lee, B. H. (2021). Exploring the person-centered individual education plan through the cooperative action of an individual education support team at an elementary school. Master degree, Gongju University.

[이보현 (2021). 초등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력적 실행을 통한 개인중심 개별화교육 계획의 실현 방안 탐색.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Lee, H. J., & Lee, Y. W. (2017).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on person-centered planning approach.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0(1), 115-137.

[이현주, 이윤우 (2017). 개인중심계획 접근법 활용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0(1), 65-89.]

Meadan, H., Halle, W. J., & Ebata, T. A. (2010). Families with children who have autism spectrum disorders: Stress and support. *Exceptional Children*, 77, 7-36.

Park, E. H. (2020). The effect of individual education planning program using person-centered planning on attitudes toward individual education plans and family empowerment of parents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Master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박은혜 (2020). 개인중심계획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프로그램이 중도장애 학생 부모의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태도 및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ark, J. K., Hwang, S. Y., Jung, D. Y., Park, Y. K., Kim, Y. M. & Kim, H. R. (2012). Quality of life level on instruc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perceived by parents and teacher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4(1), 71-97.

[박재국, 정대영, 황순영, 김영미, 김혜리 (2012). 교사와 부모가 지각한 장애학생의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삶의 질 수준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71-97.]

Park, S. J. (2021). A qualitative case study on instruction reflections and practice of special teachers participating in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Doctoral dissertation, Kongju University.

[박선정 (2021).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수업 성찰과 실천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Rasheed, A. S., Fore III, C., & Miler, S. (2006). Person-centered planning: Practice, promises, and provisos. *The Journal for Vocational Special Needs Education*, 28, 47-59.

Richie, P. (2002). *Implementing person-centered planning: Voices of experience* (Vol. 2.). Toronto, Ontario, Canada: Inclusion Press.

Schalock, L. R., Luckasson, R., & Tasse, M. J. (2021). *Intellectual disability: Definition, diagnosis, classification, and systems of support*(12th ed.).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o, H. J., Jeon, B. U. & Lim, K. W. (2021). *Korean version of the support intensity scale for children*. Seoul: Hakjisa.

[서효정, 전병운, 임경원 (2021). **한국판 아동용 지원정도척도**. 서울: 학지사]

Seo, H. J., Lim, K. W. & Jeon, B. U. (2020). *A systematic approach to personal support plans*.

Seoul: Hakjisa.

[서효정, 임경원, 전병운 (2020). **개인지원계획에 대한 체계적 접근**. 서울: 학지사]

Seo, H J., Park, Y. J., Kang, E. Y., & Park, K. O. (2019). A study on analyzing documentation status and components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1*(1), 21-44.

[서효정, 박윤정, 강은영, 박경옥(2019). 개별화교육계획(IEP) 구성요소에 대한 작성실태 및 내용요소 분석. **지적장애연구, 21**(1), 21-44.]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Stringham, C. A. (2013). *Technology and the Self-Directed IEP: Improving meeting participation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All graduate plan B and other reports.

Woo, S. J. (2019). The effects of the program to promote participation in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on the knowledge, skills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participation and self-determin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Master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우세진 (2019). 개별화교육계획 참여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 참여 지식과 기술 및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문 초록>

## 청소년기 자폐성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중심계획 수립 및 실행 사례연구

강 호 연 · 서 효 정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사들이 아동용 지원정도척도를 활용하여 개인중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겪은 경험 분석이다. **[방법]**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두 명의 청소년기 자폐성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중심계획 철학을 반영하여 개인지원계획 회의 및 면담을 실시하고, 수업일지를 작성하며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결과]** 개인중심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장점, 미래계획, 흥미 등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수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개인지원목표를 수립·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수교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를 아동용 지원정도척도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었고, 교육지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은 협력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중심계획 철학을 적용한 개인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미는 개인중심계획에서의 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중심이며, 개인중심계획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개인중심계획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멀고도 험한 길로 범주화 되었다. **[결론]** 개인중심계획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할 때 개인지원계획과 개별화교육계획이 함께 어우러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 지도 방법의 유연화 및 교육과정 재구성성은 필수적이다.

주제어 : 개인중심계획, 개인지원계획, 특수교사, 사례연구

논문 접수(Received): 2021. 08. 10. / 심사 시작(Examined): 2021. 08. 10. / 게재 확정(Accepted): 2021. 09. 13.